

---

# 한국어 세계화 어디까지 왔나

이상규·국립국어원장

---

## 언어 식민주의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주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논의 결과와 기 대치가 전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국가 단위의 말과 글 을 함께 포괄하느냐 하는 문제와 ‘세계화’를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또는 신자유주의적인 용어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논의의 결과는 상반될 수 있다. 이처럼 논의의 경계를 미리 설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적절 하게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한국어의 세계화에 따른 과정과 되짚어 보아야 할 문제거리를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21세기에는 최소한 세계 언어의 절반 정도가 소멸해 버릴 수 있다고 한다. 무슨 일 때문에 이 다양한 목소리가 침묵하게 되는 걸까? 지난 세기 서방 유 럽의 몇몇 국가 언어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에 살던 수많은 원주민들의 언어를 포식(glottophagie)하였다. 언어의 식민지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영어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부 족들에 이르기까지 영어가 지배할 기운이 보인다. 이미 영어 그 자체가 엄청

나게 다양한 변이형을 가진 변종이나 혼종의 영어로 둔갑하여, 지난 세기에 무서운 속도로 죽어간 원주민들의 텅 빈 언어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특히 지난 세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지역의 많은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부족들이 서구 유럽의 열강으로부터 그들이 살아왔던 거주지와 문화 체계와 언어를 약탈당했다. 독립 말리에서 소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가 10여 개의 아프리카 원주민 언어를 지배하고 있으며, 튀니지에서는 프랑스어가 아랍어, 몰타어, 이탈리아어를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식민 지배자의 언어는 피지배자의 언어를 지배하고 위축시킨다.

식민주의 언어 때문에 가장 상처받은 나라인 필리핀의 예를 들어 보자. 필리핀의 국민 작가인 프란시스코 시오닐 호세는 장편 소설 『에르미다』의 서문에서 미국 작가 제임스 펠로즈의 말을 인용하여 오늘날의 필리핀의 불행은 ‘손상된 문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필리핀의 ‘손상된 문화’의 속성을 호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한 젊은 작가가 저에게 타갈로그, 일로카노, 비사야말로 글을 쓰는 작가들과 한 무리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어로 글을 쓰며 예술가인 체하는 작가들, 그 일부는 대학에 몸담고 재외의 최신 문학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그들 중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그러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일본, 미국으로 이어진 오랜 식민지 시기 필리핀의 언어 혼란이 바로 그들의 문화의 손상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말이다. 최근 필리핀의 경우 그들 민족어의 하나인 타갈로그어가 공용어인 영어의 위세에 눌려 중류 계층에서는 타갈로그 영어와 같은 혼종의 영어가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에 소외된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타갈로그어밖에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원주민의 언어는 지구에서 한 번 없어지면 대체가 불가능한 천연자원과도 같은 것이다. 언어의 다양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우리가 끌어와 쓸 수 있는 지적 기반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인류의 환경 적응력은 현저히 감소된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언어와 방언이 두려우리만큼 빠른 속도로 소멸해 가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이런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50여 년 전 아프리카의 콩고, 알제리, 차드가 처했던 식민 상황에서 프랑스어의 언어적 억압과 현재 세계화의 물결로 밀려드는 영어의 언어적 억압과는 다르다. 대규모의 중심 언어인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말레이시아어, 포르투갈어 등이 오늘에 와서는 영어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 지난 세기에 비해 21세기는 언어적 억압을 받는 사람이 기하급수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물론 그 지배 방식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지구 상에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이들은 문화적 식민주의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식민주의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가장 큰 무기가 문화 폭탄이다. 특히 언어 제국주의는 언어의 침탈뿐만 아니라 호명의 수단인 이름, 그들의 역사나 문화유산, 그들의 결속력, 그들의 지적 능력과 그들이 자신에게 가진 믿음마저도 무력화시킨다. 각양각색인 아프리카 부족들이 피할 수 없는 분열적 상황에 몰려 있다.

세계적인 언어의 식민지화와 그 이후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변방의 원주민들의 언어를 포식해 온 언어 신식민주의의 증거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케냐의 작가 응구기 와 시용오는 원주민의 언어인 키쿠유어로 글을 쓴다는 이유로 투옥을 당했으며, 우비크 족의 대량 학살을 통해 우비크어가 절멸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다. 특히 지난 2백 년 동안 언어의 소멸을 초래하는 과정이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언어의 소멸은 다양한 생물종의 소멸 위협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당면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생물종의 다양성이 무너지면 지구의 위기를 예견할 수 있듯이 언어 다양성의 소멸 현상도 인류의 지적 문명의 재앙이자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이나 부족의 언어를 조직적으로 멸시하고 짓밟는 언어 식민지화에 대한 일말의 문제집도 의식하지 않았던 언어학자들은 이제 지난 시대를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한다.

## 변두리 언어의 소멸

지배 언어가 피지배 언어를 포식하는 언어 식민주의와 마찬가지로 나라 안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도시 언어(표준어)가 변두리 언어(방언)를 포식하는 곧 도시 언어가 지배 언어로, 변두리 언어가 피지배 언어의 관계로 대응된다. 나라 안에서도 어떤 일부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이론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언어 지배의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시앵 방언이 프랑스의 중심 언어가 되었듯이 중앙 집권화한 왕국의 중심 언어인 시앵 방언 이외는 모두 '방언'의 속성으로 규정된다. 만일 루이 14세가 나뉘르에 거주하였다면 프랑스 전역에 나뉘르의 발롱어가 프랑스 표준어가 되었을 것이지만 우연하게도 프랑스 시앵 방언이 프랑스의 여러 방언 가운데 으뜸가는 방언 즉 프랑스 표준어가 되었다.

일제의 지배 방식으로서 '국어'와 '민족'이라는 이념이 필요했듯이 민족주의자들은 저항을 위해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념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식민주의적 방식으로 표준어의 설계와 그 당위성을 재배자와 피지배자가 함께 공유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화의 환영으로 경성(京城)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어가 성립되었고 다른 모든 방언은 경성 표준어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 표준어의 방언 포식이 시작된 것이다.

모든 부족이나 민족의 언어나 방언은 그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언어나 방언은 그들 부족이나 민족의 삶의 지혜와 생존 전략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면서 느낀 감정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으며, 그들의 언어와 관련해서 사회적 결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값진 자산이다. 국어와 방언은 모두 고유한 어휘, 문법, 그리고 음운 체계를 가지므로 국어와 방언 사이에는 국어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어와 방언이 차이가 있다면 '지위 획득'이라는 면에서 국어가 방언보다 존중된다. 국어가 규범적인 언어인 표준어와 일치한다는 편견은 방언이 국어가 아니라는 오해를 낳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어'는 '국가어'이다. 표준어

가 국가어인 '한국어'와 문화어가 국가어인 '조선어'를 합치면 민족 단위의 하나의 '국어'가 될 수 있다. 민족어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국가어'를 합쳐야만 진정한 하나의 통일된 '국어'라는 개념으로 통합될 수 있다.

국어가 방언에 미치는 언어 폭력과 포식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일부 학자들은 국어는 국어를 구성하고 있는 방언들의 총합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어의 특질은 개별 방언들이 갖는 공통적 특질로 구성된다는 대단히 목가적인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을 가진 방언학자들은 방언들 사이의 관계를 진지하게 역사적으로 엮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오히려 언어 식민화와 언어 포식을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일종의 지적 테러리즘에 가담하고 있는 꼴이 아닐까? 지난 세기는 제국의 정치, 자본 중심의 대도시로부터 파장을 일으키는 문화에서 산출된 '비즈니스 문명'의 시대였다. 지난 세기는 특히 문화의 소통 방식의 본질인 언어의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다종의 언어가 절멸되거나 급속히 파괴된 시기였다. 범위를 좁혀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수천 년 동안 개인과 개인이 쌓아 올린 일종의 언어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방언이 표준어라는 힘 있는 언어로부터 지배당하게 됨으로써 급속한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변두리 언어의 소멸은 변두리 사람들이 살아오던 과거로부터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꼴이다.

현재 한반도는 모국어를 관리하는 정부가 두 개 있다는 현실은 우리들의 모국어를 항시 반쪽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을 다시 폭력의 수준으로 우리들에게 노정시키고 있다. 김형수(2006)는 “남과 북에서 서로 대결 의지를 높여 온 위정자들이 반공 정책과 반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한 결과 억압에 의한 언어의 자살 현상도 극심했다.”<sup>1)</sup>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심에 자리한 표준어와 문화어 그리고 변방에 자리

---

1) 김형수, 「변두리가 중심을 구원할 것이다 - 한국 문학이 아시아 연대를 꿈꾸는 이유」, 『ASIA』, VOL 1, NO.3, 2006, pp. 16-17.

한 방언들과 죽어가는 방언들 간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멸종으로 치닫는 생태계의 현상과 같이 죽어가는 강물, 물고기, 새들, 사라져 가는 나무와 들풀처럼 번두리의 방언도 함께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 소수 언어인 방언의 미학을 되살려 내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자본주의 '비즈니스 문명'의 유통 질서의 세계를 거꾸로 되돌려, 버려진 것, 번두리의 것, 소외된 것들에 대해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조선조 500여 년을 한자와 한문 사용자가 기득권을 행사했듯이 광복 후 미군정 치하에서부터 영어 능력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열쇠가 된 것이다. 20세기를 건너면서 영어 공용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지방 정부 곳곳에서는 영어 마을을 건립하고 있다. 과거 어느 시대에도 어느 한 나라가 단독으로 전 세계를 지키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맡았던 적은 없었다. 햄버거와 코카콜라로 상징되는 단일 문명의 위협이 인류의 코앞에 다가선 이 엄청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9세기 서구 유럽의 산업화에 이어 20세기에 확대된 시장 경제와 세계화의 질서는 철저하게 다양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고유어는 다 증발해 버리고 한자어와 외국어로 뒤범벅이 되어 양상하게 여위어 가는 모국어가 영어에 다시 휘둘리고 있다.

어떤 발전이든 그 발전은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오직 다양성이 보장될 때만이 진보적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단일화하고 획일화해 나가려고 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우리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 한 언어는 한 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립하는 선결 조건이다. 빌려 온 외국 언어에 어떻게 우리의 고유한 삶과 경험의 무게를 온전히 잘 실어 낼 수 있을까?

## 문화 상호주의와 한국어 세계화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정치 제도의 민주화와 산업의 첨단화 등 눈부신 발

전을 이루었다. 한국어의 위상도 그만큼 올라가 세계 10대 언어권에 진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 증가와 국제결혼 이민 여성의 증가로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의 국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체에 고용된 외국인들의 증가와 한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에 맞는 한국어 교육 방안에 대한 정책과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세기의 ‘문화 교류’는 늘 국가 간에 지배와 피지배의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은 최근 유네스코 헌장에 국가 간의 문화 교류의 목적을 ‘상호 호혜성’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시기의 문화와 언어 소통 방식에 대한 반성적 전망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문화 교류의 중심 언어의 소통 방식에는 언어 지배(language domination)의 방식과, 언어 횡단(trans-language)의 방식이 있다. 언어 횡단의 방식이란 A, B, C의 언어가 있을 때 A와 B가 소통하고 A와 C, B와 C가 소통하는 형식의 소통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언어 지배적 방식이라면 A의 언어가 B와 C의 언어를 대치하여 B와 C의 언어를 지배하거나 없애 버리는 언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언어 식민주의 국가들은 약소 국가나 변두리 부족의 언어를 절멸의 벼랑 끝으로 내몰아 왔다. 지배적 방식은 문화제국주의 또는 언어제국주의의 방식으로 중심부가 주변부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식민주의 잔재가 묻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용어 속에는 언어 지배의 우월주의가 은연중에 배어 있다. 앞으로 다중 언어의 교육과 정책의 기초는 지배적 방식이 아닌 상호 대등한 방식인 언어 횡단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 상호주의적 방식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의 세계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아시아의 문화 연대를 위해서는 아시아 내부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배적 언어로써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접해 있는 언어로 소통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언어 횡단의 방식으로 아시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시아인들의 새로운 내면적 소통을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 상호 간에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한민족 언어에서 세계의 언어로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 열풍이 대단하다. 특히 아시아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사실 한국어보다 사용자가 더 많은 힌두어, 벵골어, 우르두어 등은 제3국의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으므로 외국인 사용자 숫자를 고려한 국제적 소통 언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 사용자보다 순위가 뒤로 밀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한국어 사용자 순위가 전 세계에서 9위에 속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 II에 한국어가 포함되었으며, 2007년 현재 전 세계 62개국의 750개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 채택한 나라로는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수백 개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기업의 국외 진출에 따라 현지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 한국어 학습 수요자와 국내 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한국어가 이제 국제적 언어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오늘의 한국어의 위상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부존자원도 풍족하지 않고 또 기술 축적의 기반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경제적 부강과 함께 민주 제도의 정착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뛰어난 국가 지도자의 힘이였을까? 아니면 국민의 저력이었을까? 어느 것 하나도 틀린 것은 아니나, 완전한 정답도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구 상 어느 나라도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의 정보화 기술력과 고급 콘텐츠 기반 구축, 그리고 뛰어난 문화 기획력을 통한 문화 연출을 선

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 거대한 정보 문화의 힘의 원천에는 바로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가 있다.

한글은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문자 체계와 창제 원리를 갖춘 글자이다. 음소의 수가 적고 문자 자체의 모양도 단순하며, 현대 정보 기술 처리에 매우 적합하게 한 음절이 한 글자가 되도록 모아쓰는 매우 독특한 글자이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민주화의 열기에 부응하여 맘껏 국민의 뜻을 펴게 된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힘이 아닐까?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이어져 온 대학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핵심은 바로 한글이라는 정보 매체로 전달된 신문과 저널 그리고 대학교의 대자보를 통한 정보 소통 능력이었다. 실용적 편리성을 추구한 세종대왕의 정보화 예견력은 바로 오늘날의 한글 정보화 시대를 겨냥한 것이었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정보화의 기술 집적화가 전 세계의 선도 역할을 했는데 그 정보화 기술만이 아니라 정보화의 내용인 콘텐츠 구축도 전 세계를 선도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양질의 정보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구축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세계의 문자 중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디지털 기술로 조합하기에 가장 적합한 한글이라는 우리의 문자 덕분이었다.

560년 전 세종이 창제한 한글이 조선 시대에는 한문 문화에 짓눌렸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어에 짓밟히면서 그 생명력을 면면히 이어오다가 이제야 한글이 제대로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인들과 만나며 온갖 정보와 지식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지적 민주화를 누리는 대견한 나라이다. 정보화 덕택에 우리 국민은 지적 수준의 편차가 거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세계인들과 교류하고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저력은 바로 한글의 과학성에서 나온다.

한글을 침병으로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해 한국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동북아 지역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우방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국 문화 즐기기(이른바 ‘한류’) 열풍이 한창인 지금이야말로 아시아의 내면적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말과 상대 국가의 말이 소통되도록 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할 적절한 시기이다. 지난 20세기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언어 식민화 정책과 자본주의 강대국의 약소국 언어 약탈 정책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많은 민족의 언어가 소멸의 길을 걸어왔다.

언어의 소멸은 망국과 민족 해체로 이르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와 정신의 소멸을 의미한다. 만주 벌판에 흩어져 살던 만주족이나 여진족들이 사용하던 만주어나 여진어는 문자와 언어가 모두 사라졌으며,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사용하던 몽골어는 언어로서 명맥을 잇고 있지만 몽골 문자는 이미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근대 서구 자본주의의 폭력과 제국주의의 억압으로 점철된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한 나라들이 많다. 강대국으로부터 겪은 식민지의 고통과 전쟁으로 받은 엄청난 상처들을 가슴속에 고스란히 묻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의 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식민 지배와 전쟁의 상처를 받으며 버텨 왔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은 내면적 식민화의 그늘이 길게 드리워진 것도 알지 못하면서 서로 따뜻한 연대의 손을 단 한 번도 잡아 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함께 역사적으로 전쟁과 식민화 등 많은 상처를 경험했지만 결코 한국의 글과 말은 소멸되지 않고 도리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글과 말은 이처럼 소중한 존재이다.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의 경계를 넘어야 하는 일은 아시아의 새로운 연대와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국가 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적 공동체를 결성하는 일은 21세기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이끌어 가기 위한 매우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아시아인들의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방식'으로서 우리 겨레의 말과 글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 한국어의 세계화

한국어의 세계화와 한글의 세계화는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한 국가적인 과제이다. 흔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세계화한다는 말을 나는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한국어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Korean language)'라는 용어는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국가에 한국어를 일방적으로 전파한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어 자칫 약탈적 또는 자본 침략적 언어 교육 정책으로 비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방식은 지배적 언어 교육 방식을 그대로 이입시킨 서구 추수주의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았는가 되돌아보아야 한다.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한국어 학습 수요자들에 대비하여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중요한 국가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한국 기업의 국외 진출로 현지 외국인들과 현지 취업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또 취업을 위해 국내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 늘어남으로써 다문화 가정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어 교육 수요 층의 다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한국어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175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채택하는 대학과 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어가 세계 주요 언어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의 대상 층이 다변화하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주로 재외 동포나 그 2, 3세대들이나 한국 유학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이 그 대상 층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 문화를 익히거나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2언어로서 또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교육 목표와 교육 방법과 평가 등 다양한 전략과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어 교육의 방향은 지금까지 재외 동포를 위한 것이었다. 교육인적자원

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외 한국학교는 14개국 26개교가 있으며(2006년도 통계 이하 동일함), 한국교육원은 14개국 35개교가 있다. 그 외에 현지 재외 동포들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는 2072개교가 있는데, 이들 한글학교는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06년 4월 기준으로 통계를 낸 재외동포재단의 한국어교육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학교 교원 수는 711명, 학생 수는 8633명, 한국교육원의 직원 수는 46명, 동포 수는 6,353,498명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활용용 세종학당이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는데 이는 재외 동포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외국인인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한국어 세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종학당 설립 목표에서 밝히고 있듯이 문화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탈식민주의 방식으로 한국어의 세계화를 시도한다는 점은 주변 국가들의 자국어 국외 보급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국외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표-1>에서처럼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의 분포는 재외 동포가 많이 사는 특정 지역인 미국이나 일본 지역에 집중해서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아시아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류'의 영향과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실시에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실시되는 한국의 방문 취업제(중국 동포 대상, H-2)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알아 보려는 외국인들과 국내 유입 노동자와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현지인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주 외국인의 이주 과정의 불완전성과 인권 문제는 한국어 교육 문제 이전에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다.

〈도표-1〉 한국어 교육 시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자료 출처: 재외동포재단 누리집)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일본	4	14	73
아시아(중동, 일본 제외)	14	1	166
유럽, 구소련	1	10	634
북미	0	7	1,093
중남미	3	3	68
아프리카, 중동	4	0	38
계	14개국 26개교	14개국 35개원	106개국 2,072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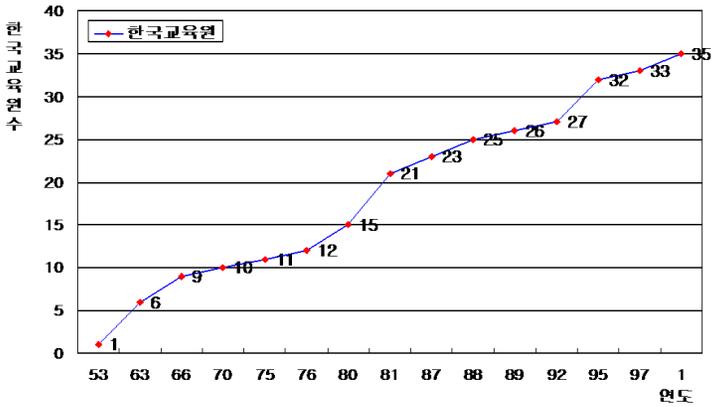
다음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의 설립 추이를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도표-2〉에서 처럼 재외 한국학교의 설립은 미군정 기간인 1946년에 시작하여 한국 전쟁 직후인 1954년도에도 1개교가 설립될 정도로 재외 동포 교육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시대적 상황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연간 3개교 이상 설립된 해는 1976년, 1998년, 2001년으로 각각 3개교가 설립되었다. 〈도표-3〉에서는 한국교육원의 연도별, 학교 개설 누적도표인데 역시 한국전쟁 중인 1953년에 처음으로 한국교육원을 설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5개교 이상 설립된 해는 1963년(5개교), 1995년(5개교), 1981년(6개교)이다.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특히 고조된 2000년 이후에 재외 한국학교는 5개교, 한국교육원은 2개교만 설립되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한국어 학습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sup>2)</sup>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학당을 주로 아시아 지역에 현지의 교육 시설과 교원을 활용하는 비정규적인 사회교육원 형태로 설립하는 것은 매우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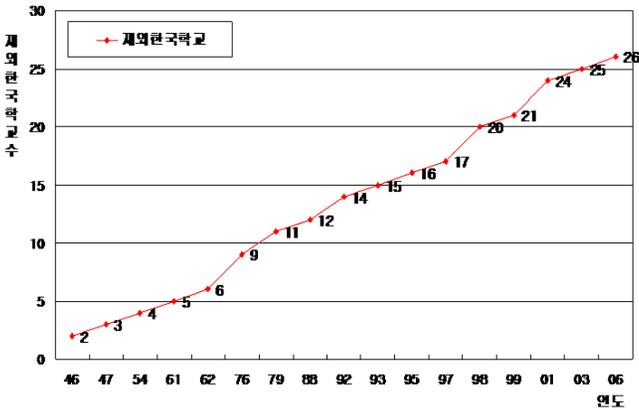
2) 동남아에서 한국어학과를 설치한 대학이 2000년 이후 베트남에서는 5개에서 9개로, 태국에서는 7개에서 16개로 늘어났고, 사실 학원도 급증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역시 한류의 여파로 현재 330여 개의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2005년 현재 전국 40여 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절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와 한국어를 함께 소개하고 가르치는 교육 기조를 정립한 점도 기존의 한국어 교육 방식과 차별성을 갖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2〉 한국교육원 개설 추이



〈도표-3〉 한국학교 개설 추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어 교육 수요자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에서 각각 추진하는 한국어 세계화 사업에서 발견되는 중복성 투자

의 효과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거나 특정 부처에서 통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 세계 2070여 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직 차원에서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재의 표준화와 쉬운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모형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긴급하게 요구되는 교재 및 부교재의 개발과 보급, 한국어 교원의 교육과 연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 기관의 운영 방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간과해 온 결과 교재 및 교과과정이나 교육 방식에 대한 변별성을 뚜렷이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이 특정 부처나 기관에 격심한 쏠림 현상을 보여 주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시행해 온 각종 한국어 교육 사업은 피교육자(또는 교육 대상자)가 대중이 아니라 언어 습득 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생 중심의 인적 자원이거나 국외 거주 한국인(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행해 온 한국어 국외 교육 부문은 주로 유학생이나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제는 문화 전파에 따른 대중적 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육 대상의 수요자 층이 변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sup>3)</sup>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교재나 교과 과정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의 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문제도 국외의 한국어 교원은 연지의 원주민 한국어 교원이 현지 한국에서 파견된 교원이 좋은지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것과 아울러 국가의 재정 지원의 기본적인 틀도 크게 바뀌어야 하며 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 업무도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의 수요 층이 엘리트 층 중심에서 대중 층으로 확대되었다는 상황 변화에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 대중으로 확대

3) <한국어 국외보급사업 협의회> 제3차 회의 자료('06. 1. 26) 참조.

된 교육 수요자 수준에 맞는 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언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내면적 소통을 구현할 수 있는 학습 조건과 환경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재와 교과 과정, 교원 문제, 교육 평가 등 한국어 교육을 위한 모든 절차와 방식을 이전의 유학생 중심, 재외 국민 중심의 교육 방식과 달리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난 2000년 이래 주로 중국과 몽골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쏠림 현상은 자본의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이주 여성의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2세들을 포함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문제가 매우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체계는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표-4>에서처럼 첫째, 현장 교육, 둘째, 온라인 e-학습 시스템 활용, 셋째, 공중파를 활용한 교육 등이 있다. 현장 교육은 학습의 장을 구성하기 매우 어렵다.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온라인 e-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피교육자의 접근성의 문제, 콘텐츠 개발 문제 등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기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다문화 가족 공동 학습 교재 개발(남편⇔아내⇔자녀), 현지 환경 적응형 교재(방언 단원 신설) 개발 등의 과제들이 남아 있으며 특히 한국어 교원의 양성과 재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글의 세계화

알파벳은 본디 중동 지역 셈족의 문자였지만 유럽으로 건너가 로마자가 되면서 서구의 표준문자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입증된 한

글을 이제 한국의 것으로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세계 보편 문자로 공유해야 한다. 지난 일제 식민지 시절 저항으로서의 국어 운동을 한 선각자들을 ‘국어 지킴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편리하고 과학적인 문자를 문자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 쓸 ‘한글 나눔이’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소수 언어권에서 보편 문자(universal letter)로 한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에 대해 일종의 카피레프트(저작권 공유) 운동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한글 세계화 운동의 첫걸음이다. 한글의 세계화는 결코 식민 지배의 방식이 아니다. 세종 대왕이 만드신 한글이라는 문자를 가진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의 상황과 비교할 때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한글은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음성을 표기할 수 있는 보편 문자로 손색이 없다.

제주도 방언을 비롯한 국내의 다양한 생활 언어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소수 민족들의 언어 유산을 한글로 전사하여 인류 언어 자산을 보존하는 방안도 설계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한글이 우수하니 기록 문자로 활용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무문자 국가에 필요한 기록물을 한글로 제작하여 장기적으로 보급하는 일이야말로 한글 나눔 운동의 첫걸음이 아닐까?

〈문학사상〉 2007년 10월호에 실린 논문을 다시 게재한 것임을 밝혀둔다.